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어느게 했으면 한다. 새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적 변화를 밟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계획과 다짐을 요청하는 날이 새해 첫날이다.

갑진년 국가 예산이 665조 6천 억 원이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새해가 됐다. 정치적으로는 올해 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을 하게 된다. 국민 유권자는 부정 부패에 오염되지 않은 참신하고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 선진 국 국회를 만들어 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하느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간구했다. 더욱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북이 통일됐으면 하는 것은 모두의 기도 관심이다. 시작하는 마음은 새 마음이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긍정적 마음이다.

새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사람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제가 다르겠지만, 공통되는 것은 첫째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의 나 위치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함과 둘째는 내가 나에게 하는 다짐의 기도다. 새해를 맞

이해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꼭 이루겠다는 나의 다짐 기도이다. 다음은 내가 하는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움을 주시라는 간곡한 간구의 기도이다. 따라서 한해의 시작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다.

일 년의 365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느님께서 주셨다. 이 시간을 가치와 바꿀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일 년의 과제이다. 해야 할 일인 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원칙에 의해, 어떻게 시간 투자를 실천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실천할 수 있는 한해의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무계획적인 여행을 바라는 일 년이 돼서는 안 된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갑진년 새해에 복을 받을 일을 정해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시간 투자를 해야 복을 받게 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은 새해 목표를 세우라고 해야 하며, 목표를 세웠으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며 많은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달리기할 때 출발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시각과 위치에서 출발신호를 한다. 일등을 하겠다는 마음이 처음 마음이다. 끝까지 일등을 하겠다는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은 목적달성을 하지만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변질한 사람은 목적 달성을 못하고 도중 포기를 한다.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 잘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이다.

시작할 때의 마음은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어야 한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감도(鳥瞰圖)를 그리는 시각(視覺)으로 앞을 보고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보람의 열매 성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시간은 남이 관리 해주지 않는다. 시간을 바르게 내가 쓰지 않으면 무거운 후회와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니며 책임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실천해 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새해를 창조의 해 바람직한 변화의 해로 정하고 부정적인 주변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나를 질적으로 새사람을 만들어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독자기고

전기차 화재 주의

박준영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총보담당 소방사

최근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구매대수가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잇그제 같은데 벌써 시장에 공급된 전기차가 1천만 대에 육박한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급증하면서 내연기관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사망했고, 2023년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으며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방대원이 대처할 수 있

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룸을 열어 화점에 물을 뿌림으로써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경우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고 소화를 하기 위해선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장시간 배터리를 냉각시켜 산소를 차단하거나 냉각수조를 이용해 배터리의 냉각 및 질식 효과를 만들어 연쇄반응 폭주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물과 시간이 소비된다.

전기차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어야 할 때이다. 평소 전기차의 과충전을 주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충격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한 진압 활동은 자제하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히 119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119 신고 시에 전기차량인지를 알려주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전기 자동차 화재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k1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k1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피브로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